

##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제주 지명 연구

오 창 명\*

###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의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의 제주 지명을 연구한 것이다.

알다시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지명 표기는 한자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이 기록은 단순히 한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한자차용표기로 쓴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올바르게 해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사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제주 기사를 번역하여 책으로 발간하기도 하고 있는데, 한자차용표기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날의 한자음대로 읽거나 번역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욱이 엉뚱하게 읽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역사를 바로 해석하지 못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번역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2개가 있다. 하나는 1970년 발간된 민족문화추진회 편 의 『신증동국여지승람 V』(고전국역총서 44)이고, 다른 하나는 2004년 발간된 김천형 편 의 『탐라사료문헌집』에 들어있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제주 관련 번역 부분이다.

두 책의 번역 부분을 일부 비교하면 지명 표기의 올바른 해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다. 몇 개만 예를 들어 본다.

\* 전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

① 金寧藪(在州東五十五里周五十餘里○藪諺作花)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

①' 금녕수(金寧藪): 주 동쪽 55리에 있는데, 둘레가 50여 리이다. ○ 수(藪)는 지방 말로 화(花)라 한다. (민족문화추진회 편, 1970:V. 99)

①" 금녕수(金寧藪): 주 동쪽 55리에 있는데, 둘레가 50여 리이다. ○ 수(藪)는 지방 말로 화(花)라 한다. (김천형 편, 2004:20)

예문 ①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원문이다. 예문 ①'와 ①"는 원문을 번역한 것인데,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金寧藪를 '금녕수'라 한 것이다. 이는 지금의 구좌읍 김녕리에 있었던 숲을 일컫는 것이다. 그런데 김녕리는 민간에서 '짐녕'이라 하기 때문에 그냥 '김녕'이라 하면 된다. 金의 훈이 성으로 쓰일 경우 '김'으로 읽고, '쇠'라는 뜻일 경우 '금'으로 읽는다는 원칙 때문에(곧 '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으로 읽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잘못이다. ①'의 번역자는 제주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데서 이해해줄 만하지만 ①"는 제주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인데도 잘못 번역하고 있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험주에 분명히 藪(수)는 전하는 말로 花(화)라 한다고 했는데, 花는 '화'를 표기한 것이 아니라 그 훈인 '꽃'을 표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藪는 전하는 말로 '꽃'이라 한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金寧藪는 '금녕수'와 '김녕수가 아니라 '짐녕꽃' 또는 '김녕꽃'으로 번역해야 한다. 원문 전체를 제대로 번역하면 다음 ②와 같다.

② 짐녕꽃(제주목 동쪽 55리의 거리에 있다. 둘레가 50여 리이다. ○ 藪(수)는 전하는 말로 '꽃'이라 한다.)

③ 吾音沙只岳烽燧(在縣東十里應餘乙溫)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정의현, 봉수)

③' 오음사지악(吾音沙只岳)봉수: 현 동쪽 10리에 있다. 여을온(餘乙溫)에 응한다. (민족문화추진회 편, 1970:V. 127)

③" 오음사지악(吾音沙只岳)봉수: 현 동쪽 10리에 있다. 여을온(餘乙溫)에 응한다. (김천형 편, 2004:20)

앞의 ①의 번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문 ③에 대한 번역인 ③'와 ③''의 번역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그런데 원문 폼퐁沙只岳(오음사지악)은 한자음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오름사기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폼퐁(오음)은 '오름'오름'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고,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그러므로 폼퐁沙只岳은 '오름사기오름'으로 읽고 번역해야 한다. 이 오름은 성산읍 신산리에 있는 독자봉(獨子峰)<sup>1)</sup>을 이른다. 餘乙溫도 한자음대로 '여을온'으로 읽거나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열온'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므로, '열온'으로 읽고 번역해야 한다. '열온'은 지금 성산읍 온평리의 옛 이름이다. 원문을 제대로 번역하면 다음 ④와 같다.

④ 오름사기오름봉수[정의현 동쪽 10리의 거리에 있다. 열온봉수에 응한다.]

⑤ 堀山烽燧(在縣東二十五里應居玉岳)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대정현, 봉수)

⑤' 굴산(堀山)봉수: 현 동쪽 25리에 있다. 거옥악(居玉岳)에 응한다. (민족문화추진회 편, 1970: V. 131)

⑤'' 굴산(堀山)봉수: 현 동쪽 25리에 있다. 거옥악(居玉岳)에 응한다. (김천형 편, 2004: 20)

원문 ⑤에 대한 번역인 ⑤'와 ⑤''의 번역이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런데 ⑤의 堀山(굴산)은 같은 책의 바로 앞에서 屈山(굴산)으로 표기되었고, 이원진의 『탐라지』 등에서 蠟山(호산)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한자음대로 '굴산'으로 읽거나 번역해서는 안 된다. 이들 세 표기는 모두 '굴메'의 한자차용표기이다. 그러므로 '굴메'로 읽거나 번역해야 한다. 지금 안덕면 창천리와 서귀포시 상예동 경계에 있는 군산(軍山)을 이른다. 居玉岳도 '거옥악'으로 읽지 말고 '거옥오름'으로 읽어야 한다. 지금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구산봉(拘山峰)을 이른다. 원문을 제대로 번역하면 다음 ⑥과 같다.

1) 이 글에서 요즘 지도를 일컬을 때는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5,000분의 1 지도를 기본으로 한다.

⑥ 끝메봉수(대정현 동쪽 25리에 있다. 거옥오름에 응한다.)

⑦ 恠叱坪藪(在州東南二十三里) 末叱加里藪(在州東三十一里)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

⑦' 괴질평수(恠叱坪藪): 주 동남쪽 23리에 있다. 말질가리수(末叱加里藪): 주 동쪽 31리에 있다.(민족문화추진회 편, 1970: V, 99)

⑦" 괴질평수(恠叱坪藪): 주 동남쪽 23리에 있다. 말질가리수(末叱加里藪): 주 동쪽 31리에 있다.(김천형 편, 2004:20)

원문 ⑦의 恠叱坪藪(괴질평수)는 '켓드르꽃'의 한자차용표기이다. 그러므로 한자음대로 '괴질평수'라 하면 엉뚱한 지명이 돼버린다. 지금 조천읍 와흘리에 있는 숲을 이른다. 末叱加里藪(말질가리수)는 '맛가리꽃'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역시 한자음대로 읽거나 번역하면 엉뚱한 지명이 돼버린다. 특히 恠는 怪의 속자인데, 한자음은 '괴'이지만 바위굴을 뜻하는 제주방언 '괘'의 음가자임을 놓칠 수 있다. 그리고 叱의 한자음은 '질'이지만 발음 '시' 표기로 쓰인다는 것을 놓치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坪은 '들'의 고유어 '드르'의 훈독자이다. '맛가리꽃'은 조천읍 북촌리 남쪽에 있었던 숲을 이른다. 원문을 제대로 번역하면 다음 ⑧과 같다.

⑧ 켓드르꽃(제주목 동남쪽 23리의 거리에 있다.) 맛가리꽃(제주목 동쪽 31리에 있다.)

이상 4개의 예문에 대한 번역문을 비교해 보았다. 이상을 놓고 볼 때, 기존 번역문이나 지명 표기에 대한 번역을 보면, 한자나 한문에 대한 문외한에게 조금 참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자나 한문, 그리고 차자표기를 조금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제주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의 번역과 해독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적어도 제주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번역이나 해독에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예전의 번역문과 최근의 번역문을 비교해보면, 전혀 차이가 없음도 알 수 있다. 이것은 최근 번역문이 안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행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수밖에 없었다.

## II. 본 론

우선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의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의 지명 표기 목록을 먼저 보이고,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의 순서로 지명을 해독해 보기로 한다.

### 제주목

葛岳, 甘勿德川, 介里沙藪, 巨口里岳, 巾入浦, 高內岳, 高內浦, 高內縣, 郭支岳, 郭支縣, 恠叱坪藪, 弓掛老介藪, 歸德村, 歸德浦, 歸德縣, 貴日村, 貴日浦, 貴日縣, 今勿德岳, 今勿岳, 金寧藪, 金寧浦, 金寧縣, 多郎時岳, 大川, 都近川, 水精川, 朝貢川, 都近川浦, 道道里岳, 道道里浦, 道衣灘, 道衣灘浦, 獨浦, 斗泉, 等於里池, 末應乃藪, 末叱加里藪, 明月浦, 明月縣, 毛興穴, 文士乃岳, 益令浦, 伐郎浦, 別刀岳, 別刀川, 別防, 屏門川, 卜懸藪, 北浦, 飛揚島, 飛陽島, 沙羅岳, 斜野藪, 斜餘鼠島, 山底川, 常時舍里, 西山岳, 松淡川, 愁德島, 水山岳, 身島, 新村縣, 涯月浦, 涯月縣, 於等浦, 餘鼠島, 牛島, 元堂岳, 尔尔藪, 泥浦, 笠山岳, 獐岳, 長兀岳, 長坪, 財巖, 小夾財, 猪岳, 朝天館, 朝天館浦, 知道島, 泉未水, 清路島, 草蘭島, 楸水, 楸子島, 破麼只岳, 板乙浦, 板乙浦岳, 板浦, 皮文岳, 漢擎山, 頭無岳, 圓山, 咸德浦, 咸德縣, 缸波頭里, 火脫島, 大火脫島, 小火脫島, 曉別岳, 訖田里

### 정의현

甘甫旨, 箇乃池, 介老川, 古旌義縣, 廣分坪, 南山, 吾音沙只岳, 雷介, 達山, 大橋藪, 大藪, 大水山, 大池, 禿達岳, 末山, 毛骨, 方巖, 三每陽岳, 西歸浦, 石積, 城山, 城板岳, 小水山, 水望, 水山, 水山坪, 水城岳, 水岳, 安佐岳, 餘乙溫, 餘叱結川, 瀛洲山, 瀛旨, 靈泉, 靈泉川, 吾召浦, 往洞, 雲之岳, 月羅山岳, 酉只浦, 鷹巖山, 錢月論, 正毛淵, 藻淵, 知歸島, 只末山, 只末山, 地稅旨, 晉舍, 兎山,

蒲岳, 閑佐甫山, 狐兒村, 狐兒縣, 狐村里, 狐村川, 狐村川, 成佛岳, 洪爐川, 洪爐縣, 火等枝, 火等枝川

대정현

加內川, 加內大川, 加內小川, 加波島, 甘山川, 居玉岳, 孤根山, 古道水, 貫島, 堀山, 屈山, 堀山, 東海, 麼羅島, 毛洞, 毛瑟岳, 毛瑟浦, 犯叱浦, 竝岳, 山房山, 塞達川, 塞浦, 西林浦, 松岳, 松岳山, 貯別利, 腮水, 猊來浦, 猊來縣, 瓦浦, 竹島, 遮歸, 遮歸岳, 遮歸浦, 把古山

1. 제주목의 지명

葛岳(갈악: 칩오름): 葛岳(갈악)은 '칩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마을에 있는 오름 중 하나로, 민간에서는 '칠오름'이라 한다.

甘勿德川(감물덕천: 감물덕내): 甘勿德川(감물덕천)은 '감물덕내'의 한자차용표기이다. 당시 제주목 서쪽 90리의 목장지대에 있다고 했는데, 어느 내를 이르는지 확실하지 않다. 당시 '널개오름'(지금의 판포악)이 당시 제주목 서쪽 80리에 있다고 했다.

介里沙藪(개리사수: 개모살곶): 介里沙藪(개리사수)는 '개모살곶' 정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어디를 이르는지 확실하지 않다.

巨口里岳(거구리악: 첫구리오름): 巨口里岳(거구리악)은 '첫구리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조천읍 대흘1리에 있는 '피꼬리오름'을 이른다. '피꼬리오름'은 '첫구리오름'의 변음이다.

巾入浦(건입포: 건들개): 巾入浦(건입포)는 '건들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제주항의 옛 포구를 이른다.

高內浦(고내포: 고넛개), 高內縣(고내현), 高內岳(고내악: 고내오름): 高內浦(고내포)는 '고넛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애월읍 고내리 포구를 이른다. 高內縣(고내현)은 애월읍 고내리에 있었던 현촌을 이른다. 高內岳(고내악)은 '고내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고내리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郭支岳(곽지악: 곽지오름), 郭支縣(곽지현): 郭支岳(곽지악)은 '곽지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애월읍 곽지리에 있는 '과오름'을 이른다. 郭支縣(곽지현)은 곽지리에 있었던 현촌을 이른다.

柞叱坪藪(괴질평수: 켓드르곶): 柞叱坪藪(괴질평수)는 '켓드르곶'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조천읍 와흘리 고평동 일대의 숲을 이른다.

弓掛老介藪(궁괘로개수): 弓掛老介藪(궁괘로개수)는 '활케로개곶'의 한자차용표기이다. 한라산에 있다고 어딘지 확실하지 않다.

歸德浦(귀덕포: 돌덕개), 歸德縣(귀덕현: 돌덕현), 歸德村(귀덕촌: 돌덕마을): 歸德浦(귀덕포)는 '돌덕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귀덕 포구를 이른다. 歸德縣(귀덕현)은 '돌덕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애월읍 귀덕리에 있었던 옛 현촌을 이른다. 歸德村(귀덕촌)은 '돌덕마을'의 한자차용표기로, 귀덕리를 이른다.

貴日浦(귀일포: 귀일개), 貴日縣(귀일현), 貴日村(귀일촌: 귀일마을): 貴日浦(귀일포)는 '귀일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하귀리 항개 포구를 이른다. 貴日縣(귀일현)은 하귀리에 있었던 현촌을 이른다. 貴日村(귀일촌)은 '귀일마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하귀리를 이른다.

今勿德岳(금물덕악: 금물덕오름): 今勿德岳(금물덕악)은 '금물덕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애월읍 유수암리에 있는 '검은데기오름'을 이른다.

今勿岳(금물악: 금물오름): 今勿岳(금물악)은 '금물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노형동에 있는 검은오름을 이른다.

金寧浦(김녕포: 김녕개), 金寧縣(김녕현), 金寧藪(김녕수: 김녕곶): 金寧浦(김녕포)는 '김녕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김녕리 포구를 이른다. 金寧縣(김녕현)은 김녕리에 있었던 현촌을 이른다. 金寧藪(김녕수)는 '김녕곶'의 한자차용표기이다. 김녕리에 있는 숲을 이른다.

多郎時岳(다랑시악: 다랑쉬오름): 多郎時岳(다랑시악)은 '다랑쉬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구좌읍 월랑봉(月郎峰)을 이른다.

大川(대천: 한내): 大川(대천)은 '한내'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용담동을 이르는 '한내'(지도에는 漢川으로 쓰고 있다.)를 이른다.

都近川(도근천: 도근내), 水精川(수정천: 수정내), 朝貢川(조공천: 조공내), 都近川浦(도근천포: 도근내개): 都近川(도근천)은 '도근내' 또는 '도그내'의 한자차용

표기이다. 지금 제주도 의도동을 흐르는 내를 이른다. 水精川(수정천)은 '수정내'의 한자차용표기로, 수정사 옆을 흐르는 내라는 데서 붙여졌다. '도근내'의 별칭이다. 朝貢川(조공천)은 '조공내'의 한자차용표기로, '도근'을 '조공'으로 이해하고 쓴 것이다. 역시 '도근내'의 별칭이다. 都近川浦(도근천포)는 '도근내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의도동 포구를 이른다.

道道里浦(도도리포: 도도릿개), 道道里岳(도도리악: 도도리오름): 道道里浦(도도리포)는 '도도릿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포구를 이른다. 道道里岳(도도리악)은 '도도리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도두동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道衣灘(도의탄: 도의여), 道衣灘浦(도의탄포: 도의옛개): 道衣灘(도의탄)은 '도의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구좌읍 하도리에 있는 여를 이른다. 道衣灘浦(도의탄포)는 '도의옛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구좌읍 하도리에 있는 포구를 이른다.

獨浦(독포: 독개): 獨浦(독포)는 '독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한림읍 옹포리 포구를 이른다.

斗泉(두천: 말물): 斗泉(두천)은 '말물'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제주향교 안에 있었다.

等於里池(등어리지: 등어리못): 等於里池(등어리지)는 '등어리못'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제주 서쪽 50리에 있다고 했는데, 어딘지 확실하지 않다.

末應乃藪(말응내수: 멩내곶): 末應乃藪(말응내수)는 '멩내곶'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제주 서남쪽 62리에 있다고 했는데, 어딘지 확실하지 않다.

末叱加里藪(말질가리수: 맛가리곶): 末叱加里藪(말질가리수)는 '맛가리곶'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구좌읍 북촌리 남쪽 일대에 있었던 숲을 이른다. 민간에서 '마가리질', '마가릿동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맛가리'의 변음 '마가리'를 확인할 수 있다.

明月浦(명월포: 멩월개), 明月縣(명월현): 明月浦(명월포)는 '멩월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한림향 일대를 이른다. 明月縣(명월현)은 지금 명월리에 있었던 현촌을 이른다.

毛興穴(모흥혈: 멩굴): 毛興穴(모흥혈)은 '멩굴'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삼성



혈 사적지에 있었던 굴을 이른다.

文士乃岳(문사내악: 그스내오름): 文士乃岳(문사내악)은 '그스내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민간에서는 '그시내오름'이라고 한다.

盃令浦(배령포: 배령잇개): 盃令浦(배령포)는 '배령잇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한림읍 금능리 포구를 이른다.

伐郎浦(벌랑포: 버렁개): 伐郎浦(벌랑포)은 '버랑개' 또는 '버렁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용담동의 '벙문내' 하류 일대를 이른다.

別刀岳(별도악: 벨도오름), 別刀川(별도천: 벨돗내): 別刀岳(별도악)은 '벨도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민간에서는 주로 '벨도봉'이라 하는데, 지도에는 화북악(禾北岳)으로 표기되어 있다. 別刀川(별도천)은 '벨돗내'의 한자차용표기이다. 민간에서는 주로 '베릿내'라고 하는데, 지도에는 화북천(禾北川)으로 표기되어 있다.

別防(별방): 別防(별방)은 지금 구좌읍 하도리 포구 일대에 성을 새로 쌓고 별방성(別防城)이라 한데서 유래하였다. 특별히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屏門川(병문천: 벙문내): 屏門川(병문천)은 '벙문내'의 한자차용표기이다. 병문(屏門) 옆을 지나가는 내라는 데서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卜懸藪(복현수: 짐걸이곶): 卜懸藪(복현수)는 '짐걸이곶' 정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한라산 안에 있다고 했는데 어딘지 확실하지 않다.

北浦(북포: 뒷개): 北浦(북포)는 '뒷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조천읍 북촌리 포구를 이른다.

飛揚島·飛陽島(비양도: 비양섬): 飛揚島·飛陽島(비양도)는 '비양섬' 또는 '비영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한림읍 비양도를 이른다.

沙羅岳(사라악: 사라오름): 沙羅岳(사라악)은 '사라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건입동에 있는 사라봉(紗羅峰)을 이른다.

斜野藪(사야수: 빗드르곶): 斜野藪(사야수)는 '빗드르곶'의 한자차용표기이다. 한라산에 있다고 했는데, 어딘지 확실하지 않다.

斜餘鼠島(사여서도: 사여스섬): 斜餘鼠島(사여서도) '사여스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사수도 옆에 있는 여서도라는 데서 '斜+餘鼠島'로 쓴 것일 수도 있고, '빗겨 있는 여서도'라는 '斜+餘鼠島'로 쓴 것일 수도 있다. 다른 문헌이나 옛 지도에는 東

餘鼠島, 餘鼠島 등으로 표기하였다. 지금의 여서도를 이른다.

山底川(산저천: 산젓내): 山底川(산저천)은 '산젓내'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의 제주시 동문로터리를 흐르는 '산지천'을 이른다.

常時畝里(상시사리): 常時畝里(상시사리)는 '상시사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한림읍 상대리에 있는 '츠나오름' 일대의 숲을 이른다.

西山岳(서산악: 서메오름): 西山岳(서산악)은 '서메오름' 또는 '서모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민간에서는 '서모오름' 또는 '서모름'이라 하는데, 지도에는 서우봉(犀牛峰)으로 표기하고 있다.

松淡川(송담천: 솔담내): 松淡川(송담천)은 '솔담내'의 한자차용표기이다.

愁德島(수덕도: 수덕섬): 愁德島(수덕도)는 '수덕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추자면에 속한 섬이다. 지도에는 '수덕이'로 표기되어 있다.

水山岳(수산악: 물메오름): 水山岳(수산악)은 '물메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애월읍 수산리에 있는 수산봉(水山峰)을 이른다.

身島(신도: 몸섬): 身島(신도)는 '몸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상추자도를 이른다.

新村縣(신촌현): 新村縣(신촌현)은 조천읍 신촌리에 있었던 옛 현촌을 이른다.

涯月浦(애월포: 애월개), 涯月縣(애월현): 涯月浦(애월포)는 '애월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애월읍 애월리 포구를 이른다. 涯月縣(애월현)은 애월리에 있었던 현촌을 이른다.

於等浦(어등포: 어등개): 於等浦(어등포)는 '어등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구좌읍 행원리 포구를 이른다.

餘鼠島(사서도: 사슴섬): 餘鼠島(사서도)는 '사슴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구좌면의 사서도를 이른다.

牛島(우도: 웨섬): 牛島(우도)는 '웨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소섬'이라고도 한다. 북제주군 우도면을 포함하는 섬을 이른다.

元堂岳(원당악: 웬당오름): 元堂岳(원당악)은 '웬당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원당봉(元堂峰)을 이른다.

尙尔藪(이마수: 그마곶): 尙尔藪(이마수)는 '그마곶' 또는 '고마곶'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성산읍 종달리 '분토왓' 일대의 숲을 이른다.

泥浦(이포: 흘캐): 泥浦(이포)는 '흘캐'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제주시 도두동에 있었던 한 포구를 이른다.

笠山岳(입산악: 입산오름): 笠山岳(입산악)은 '입산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구좌읍 김녕리 입산봉(笠山峰)을 이른다.

獐岳(장악: 노로오름): 獐岳(장악)은 '노로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당시 제주목 동남쪽 55리에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지금 대록산(大鹿山)과 소록산(小鹿山)을 아울러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는 전자를 '큰사슴미', 후자를 '족은사슴미'라고 한다.

長兀岳(장울악: 장오리오름): 長兀岳(장울악)은 '장오리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오름으로, 지금 지도에는 '물장오리'로 표기되어 있다.

長坪(장평: 진드르): 長坪(장평)은 '진드르'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민간에서는 '정드르'라 하고 있다.

財巖(재암: 재바위), 小夾財(소협재: 족은섬지): 財巖(재암)은 '재바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한림읍 협재리에 있었다. 小夾財(소협재)는 '족은협재' 또는 '족은섬지'의 한자차용표기이다.

猪岳(저악: 돛오름): 猪岳(저악)은 '돛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구좌읍 평대리와 송당리 경계에 있는 오름으로, 지금 지도에는 '돛오름'으로 표기되어 있다.

朝天館(조천관), 朝天館浦(조천관포: 조천관개): 朝天館(조천관)은 지금 조천읍 조천리에 있었던 관(館: 조선 시대에, 관원이 공무로 다닐 때에 숙식을 제공하고 빈객을 접대하기 위하여 각 주와 현, 현촌 따위에 둔 객사)을 이른다. 朝天館浦(조천관포)는 '조천관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조천관에 있는 포구라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知道島(지도도: 지길섬): 知道島(지도도)는 '지길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추자면 남쪽에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섬생이'를 이르는 것으로 보이나 확실하지 않다.

泉未水(천미수: 세미물): 泉未水(천미수)는 '세미물'의 한자차용표기이다. 둘레가 25리라 했을 뿐 위치나 거리를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를 이르는지 확실하지 않다.

淸路島(청로도: 푸룽이섬): 淸路島(청로도)는 '푸룽이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추자면의 하추자도 남쪽에 있는 한 섬으로, 지금 지도에는 '푸랭이'로 표기되어 있다.

草蘭島(초란도: 풀난섬): 草蘭島(초란도)는 '풀난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추자면의 하추자도 남쪽에 있는 한 섬으로, 지금 지도에는 '밖미역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楸水(추수): 楸水(추수)는 '가래물' 정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제주목 서남쪽 60리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딘인지 확실하지 않다.

楸子島(추자도: 주자섬): 楸子島(추자도)는 '주자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추자면의 주섬인 추자도를 이른다.

破麼只岳(파마지악: 바메기오름): 破麼只岳(파마지악)은 '바메기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조천읍 선홀리 '알밤오름'과 '윗밤오름'을 아울러 이른다. '밤오름'은 '바메기오름'의 잘못이다.

板乙浦(판을포: 널개), 板浦(판포: 널개), 板乙浦岳(판을포악: 널개오름): 板乙浦(판을포)와 板浦(판포)는 '널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한경면 판포리 포구를 이른다. 板乙浦岳(판을포악)은 '널개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판포리에 있는 오름을 이르는데, 요즘 지도에는 판포악(板浦岳)으로 표기되어 있다.

皮文岳(피문악: 갓그리오름): 皮文岳(피문악)은 '갓그리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한림읍 상명리에 있는 선소오름과 동명리에 있는 개구리오름(갓그리오름의 잘못이다.)을 아울러 이른다.

漢擎山(한라산), 頭無岳(두무악: 두미오름), 圓山(원산: 둠피), 圓嶠山(원교산), 東巫小峽(동무소협): 漢擎山(한라산)은 운한(雲漢: 은하수)을 잡아끄는 높은 산이라는 데서 붙여진 것으로, 고려 시대 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頭無岳(두무악)은 '두미오름'의 한자차용표기로, 한라산의 본래 이름 중 하나였다. 圓山(원산)도 '둠피'의 한자차용표기로, 역시 '두미오름'의 변음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圓嶠山(원교산)은 둥글면서 높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東巫小峽(동무소협)은 동쪽에 있는 신기한 작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한라산 정상 동쪽을 일컬었던 이름이다.

咸德浦(함덕포: 함덕개), 咸德縣(함덕현): 咸德浦(함덕포)는 '함덕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포구를 이른다. 咸德縣(함덕현)은 함덕리

에 있었던 현촌을 이른다.

缸波頭里(항파두리: 항바두리): 缸波頭里(항파두리)는 '항바두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애월읍 고성리에 있는 지명으로, 이 일대에 토성(土城)을 쌓았다는 데서 缸波頭里 土城(항파두리토성)이라 한다.

火脫島(화탈도: 화탈섬), 大火脫島(대화탈도: 큰화탈섬), 小火脫島(소화탈도: 작은화탈섬): 火脫島(화탈도)는 '화탈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大火脫島(대화탈도)는 '큰화탈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小火脫島(소화탈도)는 '작은화탈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민간에서는 주로 '관탈섬'이라 하고, '큰관탈'과 '작은관탈'로 나누어 불린다.

曉別岳(효별악: 새벨오름): 曉別岳(효별악)은 '새벨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애월읍 어음2리에 있는 오름으로, 지도에는 '새벨오름'으로 표기되어 있다.

訖田里(홀전리: 홀랏마을): 訖田里(홀전리)는 '홀랏마을' 정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이것은 마을 이름이 아니라 오름 또는 숲 이름으로 쓰인 것이다. 필자는 숲 이름으로 보인다. 제주목 서쪽 82리에 있다고 했는데, 어디를 이르는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당시 '널개오름'(板浦岳)이 제주목 서쪽 80리에 있다고 했음을 참고할 수 있다.

## 2. 정의현의 지명

甘甫旨(감보지: 감보므르): 甘甫旨(감보지)는 '감보므르'의 한자차용표기이다.

箇乃池(개내지: 개내물·개나물): 箇乃池(개내지)는 '개내물·개나물'의 한자차용표기이다. 箇乃是 '개내' 또는 '개나'의 한자차용표기로, '개남'의 변음이다. '개남'은 '누리장나무'를 이르는 제주방언이다. 池(지)는 '못'의 유사 훈인 '물'의 훈독자 표기이다. 수산2리와 온평리 경계를 지나는 16번 도로 가에 있는 못을 이르는데, 지금도 그 못이 남아있다.

介老川(개로천: 개룻내): 介老川(개로천)은 '개룻내'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오늘 날의 천미천(川尾川)을 이른다.

古旌義縣(고정의현: 옛 정의현): 古旌義縣(고정의현)은 '옛 정의현'의 한자차용 표기이다. 지금 성산을 고성리에 있었던 현을 이른다.

廣分坪(광분평: 넓은드르): 廣分坪(광분평)은 '넓은드르'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난드르'의 옛 이름이다.

南山(남산): 南山(남산)은 원래 '앞메'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일찍부터 '남산'이라 해왔다. 지금 성산을 신평리에 있는 남산봉(南山峰)을 이른다.

雷介(뇌개: 울에개): 雷介(뇌개)는 '울에개·우레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도 성산읍 수산리에 '울렛므르·울레므르·우레므르'라는 지명이 전해진다. 雷(뇌)는 '우레' 또는 '우레'의 옛말 '울에'의 변음 '울레'의 훈독자 표기이다. 介(개)는 '개'의 음가자 표기이다. 원래 '울개'라고 했는데, 둘째 음절 첫소리 'ㄱ'이 앞 음절 말음 '르'의 영향으로 묵음화 하여 '우레' 또는 '울레'로 굳어졌다. 이원진의 『탐라지』(정의현, 산천)에는 鬱浦(울포: 울개)울에)로 표기되어 있다.

達山(달산): 達山(달산)은 원래 '달메'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일찍부터 '달산'이라 해왔다. 지금 표선면 하천리 달산봉(達山峰)을 이른다.

大橋藪(대교수: 한드리꽃): 大橋藪(대교수)는 '한드리꽃'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정의현성 동쪽 17리에 있다고 했는데, 어디를 이르는지 확실하지 않다.

大藪(대수: 한꽃): 大藪(대수)는 '한꽃'의 한자차용표기이다. 당시 정의현성 남쪽 4리에 있다고 했는데, 어디를 이르는지 확실하지 않다.

水山(수산: 물메), 大水山(대수산: 큰물메), 小水山(소수산: 작은물메), 水山坪(수산평: 물메드르): 水山(수산)은 '물메' 또는 '물미'의 한자차용표기이고, 大水山(대수산)은 '큰물메' 또는 '큰물미'의 한자차용표기이고, 小水山(소수산)은 '작은물메' 또는 '작은물미'의 한자차용표기이다. 水山坪(수산평)은 '물메드르'의 한자차용표기이다. 水는 '물'의 훈독자이고, 山은 '메' 또는 '미'의 훈독자이다. 水山은 지금의 성산읍 수산리를 이르기도 하고, 고성리에 있는 대수산봉을 이르기도 한다. 大水山은 고성리에 있는 대수산봉(大水山峰)을 이른다. 小水山은 고성리에 있는 소수산봉(小水山峰)을 이른다. 水山坪은 수산리에 있는 수산들을 이른다.

大池(대지: 한못): 大池(대지)는 '한못'의 한자차용표기이다. 당시 정의현 동쪽 15리에 있다고 했다. 지금 수산1리에 이는 '한못'을 이른다.

禿達岳(독달악: 뽕다리오름): 禿達岳(독달악)은 '뽕다리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

다. 지금 구좌읍 종달리에 있는 은월봉(隱月峰)을 이른다.

末山(말산: 말메): 末山(말산)은 '말메' 또는 '말미'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구좌읍 종달리와 성산읍 시흥리에 걸쳐있는 두산봉(斗山峰)을 이른다.

毛骨(모골: 모고리): 毛骨(모골)은 '모고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성산읍 삼달리에 있는 '모구리오름'을 이른다.

方巖(방암: 모바위): 方巖(방암)은 '모바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한라산 꼭대기에 있다고 했다.

三每陽岳(삼매양악: 삼매양오름): 三每陽岳(삼매양악)은 '삼매양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三每(삼매)는 '쌔'의 제주방언 '세미'의 차자표기이다. 陽은 '양'의 음가자 표기이다. 지금 서귀포시 서흥동에 있는 삼매봉(三梅峰)을 이른다.

西歸浦(서귀포: 서귓포): 西歸浦(서귀포)는 '서귓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서귀항 일대를 이른다.

石積(석적): 石積(석적)은 당시 정의현성 동남쪽 5리에 있다고 했다. 이원진의 『탐라지』(정의현, 산천)에는 積石坡(적석파)로 표기되어 있다. 지금 표선면 삼달리 '큰독마르'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成佛岳(성불악: 성불오름): 成佛岳(성불악)은 '성불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성불오름'을 이른다.

城山(성산): 城山(성산)은 '성산' 또는 '성산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성산일출봉(城山日出峰)을 이른다.

城板岳(성판악: 성널오름): 城板岳(성판악)은 '성널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조천읍 교래리와 남원읍 신례리 경계에 있는 성판악(城板岳) 또는 '성널오름'을 이른다.

水望(수망: 물보라): 水望(수망)은 '물보라'물우라'의 한자차용표기이다. 水望(수망)은 오름 이름으로 쓰였는데, 어느 오름을 이르는지 확실하지 않다.

水城岳(수성악: 물жат오름): 水城岳(수성악)은 '물жат오름' 또는 '물чат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조천읍 교래리와 표선면 가시리, 남원읍 수망리 경계에 있는 오름인 '검은오름'(5,000분의 1 지도에 '검은오름'으로 표기되었으나, 이는 '물чат오름'의 잘못이다.)을 이른다.

水岳(수악: 물오름): 水岳(수악)은 '물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남원읍

수망리와 조천읍 교래리 경계에 있는 '물오름'을 이른다.

安佐岳(안좌악: 안좌오름): 安佐岳(안좌악)은 '안좌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민간에서는 '안좌름'이라고 하는데, 지금 병곳오름을 이른다.

餘乙溫(여을온): 餘乙溫(여을온)은 '얼온'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성산읍 은평리를 이른다.

餘叱結川(여질결천: 옛저릿내): 餘叱結川(여질결천)은 '옛저릿내'의 한자차용표기이다. 餘叱(여질)은 '옛'의 음가자 결합 표기, 結은 '결'의 제주방언 '질'의 음가자 표기, 川은 '내'의 혼독자 표기이다. 지금 지도에는 송천(松川: 솔내)으로 표기되어 있다.

瀛洲山(영주산), 瀛旨(영지: 영미르): 瀛洲山(영주산)은 지금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영주산을 이른다. 瀛旨(영지) '영미르'의 한자차용표기로, 영주산의 별칭이다.

靈泉(영천: 영세미), 靈泉川(영천천: 영세밋내): 靈泉(영천)은 '영세미'의 한자차용표기로, 서귀포시 영천동 '영천악(靈川岳)' 가까이에 있었던 샘을 이른다. 靈泉川(영천천)은 '영세밋내'의 한자차용표기로, '영세미'를 끼고 흐르던 내를 이른다. 지금 돈내코를 흐르는 영천천(靈泉川)을 이른다. 하류는 효돈천(孝敦川)이다.

呑召浦(오조포: 오줄개): 呑召浦(오조포)는 '오줄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성산읍 오조리 포구를 이른다.

呑呑沙只岳(오음사지악: 오름사기오름): 呑呑沙只岳(오음사지악)은 '오름사기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독자봉(獨子峰)을 이른다.

往洞(왕동: 왕골): 往洞(왕동)은 '왕골' 또는 '왕굴'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표선면 세화1리와 가시리 사이에 있는 '구렁'을 이른다.

雲之岳(운지악: 운지오름): 雲之岳(운지악)은 '운지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남원읍 남원2리에 있는 운지악(雲之岳) 또는 운지오름을 이른다.

月羅山岳(월라산악: 둘라미오름): 月羅山岳(월라산악)은 '둘라미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서귀포시 신희동에 있는 월라봉(月羅峰)을 이른다.

酉只浦(유지포: 유기개): 酉只浦(유지포)는 '유기개' 또는 '유기에'의 한자차용표기이다. 당시 정의현성 동쪽 20리에 있다고 했다. 어디를 이르는지 확실하지 않다.

鷹巖山(응암산: 매오름): 鷹巖山(응암산)은 '매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표선면 표선리 매오름을 이른다.



錢月論(전월론: 돈월론이): 錢月論(전월론)은 '돈월론이'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어디를 이르는지 확실하지 않다.

正毛淵(정모연: 정모소): 正毛淵(정모연)은 '정모소'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정방폭포 밑, 그리고 위에 있었던 소를 이른다.

藻淵(조연: 물망소): 藻淵(조연)은 '물망소'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서귀포시 호근동 하논 안에 있는 '물망소'를 이른다.

知歸島(지귀도: 짓귀섬): 知歸島(지귀도)는 '짓귀섬' 또는 '짓구섬(지꾸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남원읍 남원리 바다에 있는 知歸島(지귀도)를 이른다.

只末山(지말산: 지각메): 只末山(지말산)은 '지각메'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성산읍 종달리에 있는 지미봉(地尾峰)을 이른다.

只末山(지미산: 지각메): 只末山(지미산)은 '지각메'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성산읍 종달리에 있는 지미봉(地尾峰)을 이른다.

地稅旨(지세지: 지세므르): 地稅旨(지세지)는 '지세므르'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서귀포시 토평동과 보목동 경계에 있는 '지세므르'를 이른다.

鴛(진사): 鴛(진사)는 '진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표선면 성읍리의 옛 이름이다.

兎山(토산): 兎山(토산)은 '토산'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표선면 토산리 또는 토산에 있는 토산봉(兎山峰)을 이른다.

蒲岳(포악: 줄보오름): 蒲岳(포악)은 '줄보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이원진의 『탐라지』(정의현, 산천)에는 紫蒲岳(자포악: 줄보오름)으로 표기되어 있다. 지금 지도에는 자배봉(資輩峰)으로 표기되어 있다.

閑佐甫山(한좌보산: 한좌보미): 閑佐甫山(한좌보산)은 '큰 좌보미'라는 뜻을 가진 '한좌보미'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표선면 성읍2리에 있는 '좌보미'를 이른다. 원래는 '한좌보미'라 했는데, 나중에는 '큰'의 뜻을 가진 '한'이란 말이 빠지고 그냥 '좌보미'라 하게 된 것이다.

狐兒縣(호아현: 여스현), 狐兒村(호아촌: 여스마을), 狐村里(호촌리: 여스마을), 狐村川(호촌천: 여스마을내): 狐兒縣(호아현)은 '여스현'의 한자차용표기로, 지금 서귀포시 효돈동에 있었던 현촌을 이른다. 狐兒村(호아촌)과 狐村里(호촌리)는 '여스마을'의 한자차용표기로, 지금 효돈동의 옛 이름이다. 狐村川(호촌천)은

‘여스믄을내’의 한자차용표기로, 지금 남원읍 하례리를 흐르는 하례천(下禮川)을 이른다.

洪爐縣(홍로현), 洪爐川(홍로천: 홍룻내): 洪爐縣(홍로현)은 지금 서귀포시 서동에 있었던 현을 이른다. 洪爐川(홍로천)은 ‘홍룻내’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서귀포시 서쪽을 흘러 천지연폭포로 흘러 들어가는 선반내를 이른다. 민간에서는 주로 ‘선반내’라 하나, 지도에는 연외천(淵外川)으로 표기되어 있다. 淵外川은 ‘숫밭내’의 한자차용표기에 불과한 것이고, 민간에서 부르는 ‘선반내’는 ‘숫밭내’의 변음일 뿐이다.

火等枝(화등지: 부등지), 火等枝川(화등지천: 부등짓내): 火等枝(화등지)는 ‘부등지’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오름 이름을 이르는데, 어디를 이르는지 확실하지 않다. 남원읍 한남리의 옛 이름이 ‘부등개’인데, 이와 관련된 것이다. 火等枝川(화등지천)은 ‘부등짓내’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서중천(西中川)을 이르는데, 西中은 옛 서중면(西中面)을 흐르는 내라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 3. 대정현의 지명

加內川(가내천: 더넛내), 加內大川(가내대천: 더내큰내), 加內小川(가내소천: 더내족은내): 加內川(가내천)은 ‘더넛내’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강정천을 이른다. 이 내에는 ‘큰 내’와 ‘작은 내’가 있어서 大加內川(대가내천: 큰더넛내), 小加內川(소가내천: 족은더넛내)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加內大川(가내대천)은 ‘더내큰내’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서귀포시 강정동을 흐르는 강정천(江汀川)을 이른다. 加內小川(가내소천)은 ‘더내족은내’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서귀포시 강정동을 흐르는 악근천(嶽近川)을 이른다. 嶽近川은 ‘아근내’의 한자차용표기인데, ‘아근’은 ‘작은’의 뜻을 가진 옛말이다. ‘아근내’는 곧 ‘작은 내’라는 뜻이다.

加波島(가파도: 더바섬): 加波島(가파도)는 ‘더바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대정읍 가파리를 포함하는 섬을 이른다.

甘山川(감산천: 감산내): 甘山川(감산천)은 ‘감산내’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안덕면 감산리를 흐르는 창고천(倉庫川) 일부를 이른다.

居玉岳(거옥악: 거옥오름): 居玉岳(거옥악)은 '거옥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서귀포시 하원동 구산봉(拘山峰)을 이른다. 원래는 구산봉(龜山峰)으로 표기해야 한다.

孤根山(고근산): 孤根山(고근산)은 지금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산을 이른다.

古道水(고도수: 고도물): 古道水(고도수)는 '고도물'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정의현 서북쪽에 있다 했으나, 어디를 이르는지 확실하지 않다.

貫島(관도: 고망난섬): 貫島(관도)는 '고망난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안덕면 사계리 형제섬(兄弟島)을 이른다. 민간에서는 '성제섬'이라 한다.

屈山·堀山(굴산: 굴메): 屈山·堀山(굴산)은 '굴메'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안덕면 창천리와 서귀포시 상예동 경계에 있는 군산(軍山)을 이른다.

東海(동해: 동희): 東海(동해)는 '동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서귀포시 월평동에 있었던 지명이다.

麼羅島(마라도: 마래섬): 麼羅島(마라도)는 '마래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대정읍 마라리를 포함하는 섬을 이른다. 지금은 마라도(馬羅島)로 쓰고 있다.

毛洞(모동: 털골): 毛洞(모동)은 '털골' 또는 '털굴'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조선 후기에 마장(馬場)이 있었기 때문에 모동장(毛洞場)으로 유명하다. 대정읍 무릉리 산간에서 한경면 고산리 산간 일대를 이른다.

毛瑟浦(모슬포: 모슬개), 毛瑟岳(모슬악: 모슬개오름): 毛瑟浦(모슬포)는 '모슬개' 또는 '모실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모슬·모실'을 '모래'의 제주방언 '모살'의 변음이다. 지금 대정읍 하모리 포구를 이른다. 毛瑟岳(모슬악)은 '모슬개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모슬봉(募瑟峰)을 이른다.

犯叱浦(범질포: 벗개): 犯叱浦(범질포)는 '벗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안덕면 화순 포구를 이른다.

竝岳(병악: 굴른오름): 竝岳(병악)은 '굴른오름' 또는 '굴론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쌍둥이' 오름이라는 뜻이다. 두 개의 오름을 아울러 이른다. 지금 안덕면 상창리에 있는 오름인데, 지금 지도에는 竝岳(병악), 작은병악으로 표기되어 있다.

山房山(산방산): 山房山(산방산)은 지금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산을 이른다.

塞達川(색달천: 막은다릿내): 塞達川(색달천)은 '막은다릿내'의 한자차용표기이

다. 지금 서귀포시 색달동을 흐르는 내로, 색달천(塞達川)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 동쪽을 흐르는 내를 중문천(中文川)이라 하고, 두 내가 합쳐진 중류를 백귀천(白歸川)이라 하고, 그 하류는 '베릿내'라고 한다.

塞浦(색포: 막은개): 塞浦(색포)는 '막은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었던 포구를 이른다.

西林浦(서림포: 서림개): 西林浦(서림포)는 '서림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일파리에 있는 포구를 이른다.

松岳(송악)·松岳山(송악산), 貯別利(저별이): 松岳(송악)·松岳山(송악산)은 '솔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대정읍 상모리 바닷가에 있는 송악산(松岳山)을 이른다. 貯別利(저별이)는 '저벼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송악산의 별칭으로 쓰이기도 하고, 송악산 주봉을 두르고 있는 오름을 일컫기도 한다.

腮水(시수): 腮水(시수)는 '양지물'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정의현성 서북쪽 15리에 있고 둘레가 31리라 했는데, 지금 어디를 이르는지 확실하지 않다.

猓來浦(예래포: 예랫개), 猓來縣(예래현): 猓來浦(예래포)는 '예랫개' 또는 '엘랫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猓來縣(예래현)은 지금 서귀포시 예래동의 옛 이름이다.

瓦浦(와포: 지셋개): 瓦浦(와포)는 '지셋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한경면 용수리 포구를 이른다.

竹島(죽도: 대섬): 竹島(죽도)는 '대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를 이른다.

遮歸(차귀: 자귀), 遮歸岳(차귀악: 자귀오름), 遮歸浦(차귀포: 자꺄개): 遮歸(차귀)는 '자귀'의 한자차용표기, 遮歸岳(차귀악)은 '자귀오름'의 한자차용표기, 遮歸浦(차귀포)는 '자꺄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마을, 오름, 포구이다. 민간에 남아있는 '자구내', '자구내 포구', '자구내마을'은 '자귀'의 변음이다.

把古山(파고산: 바곰지오름): 把古山(파고산)은 '바곰지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단산(簾山)을 이른다. 민간에서는 '바곰지오름'이라 한다.

### III. 마무리

지금까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38의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의 지명 표기에 대하여 해독하였다.

최근에 사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번역한 책이 발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번역이 시원치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고유명사 표기의 경우는 심각하다. 대부분의 고유명사는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난 것이 일반적인데도, 한문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아마 한자차용표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그럴 것이다. 그렇더라도 명색이 한문 번역물이라고 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명 표기인 경우, 오늘날의 한자음으로 읽어버리면 엉뚱한 지명이 돼버리는 데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쓴 것이다. 사료 번역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新增東國輿地勝覽』

김찬홍 외 7인(2002),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김천형 편저(2004), 『탐라사료문헌집』, 탐라사료집록④, 도서출판 디딤돌.

민족문화추진회(1970), 『신증동국여지승람 V』, 고전국역총서 44,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오창명(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오창명(2000), "『탐라순력도』의 땅 이름",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